

토 론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서 각 분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민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손호민: 두 선생님이 너무 철저히 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이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두 분 말씀과 이정민 선생님의 맨 처음 소개하시는 여러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언어학에서 이론과 자료는 두 필수적인 조건이고, 종이의 양면과도 같고, 또 어찌보면 닭과 계란같은 관계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추구하는 분도 결국은 소수의 자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은 자료를 보태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하고, 자료를 주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이론없이 분석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단일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또다른 이론을 거기에 부가시켜서 더 좋은 분석을 해내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더 역점을 두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쪽, 보다 나은 이론정립을 위해서 아까 이기용선생님 말씀대로 justification의 수단으로 자료를 취급하는 approach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이론정립을 언어학의 목표로 하는 approach겠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료를 완벽하고 경제적이고 모순없이 분석해내기 위해 적

절한 이론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료분석을 목표로 하는 그런 approach가 실제로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처음 태평양언어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후자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태평양언어는 문자가 없는 언어이고 그런 언어를 스스로 듣고 그걸 잘 분석해내고 문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추상적인 이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시급한 게 자료의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연히 후자인 자료분석을 언어기술의, 언어학의 goal로 했읍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론정립과 자료분석은 두 개 다 필요하고, 두 개 다 안 할 수 없는 게 언어학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한정되어 있으니 한 사람이 두 개 다 하기에는 벅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업적으로, 한 쪽에서는 이론정립에 몰두하는 한편, 한 쪽에서는 자료를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테두리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분업적인 approach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업의 가능성을 제기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Robert Murray 교수의 explanation에 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R. Murray: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vitation to attend. It has given me a chance to think about my research program in broader terms

than I probably normally would, and I have made some notes on my view of theory in linguistics, whi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if I could. And I should mention here that I've been very heavily influenced by former supervisor Theo Vennemann at the University of Munich, so you might see that influence here. I essentially followed—and I hope that this jives well with what you have been saying previously looking at your handout.—I essentially followed the view that there are two main types of linguistic theories. The first of these is what may be called a descriptive theory. Its central goal is to describe its domain. For example, on a broad scale, these theories tell essentially what is possible and what is not possible in human language. On a smaller scale, for example, a syntactic theory of English tells what is a possible sentence of English and what is not a possible sentence of English. These descriptive theories do not of course in any strong sense of the word, I would say, 'explain' their domain. Strong explanation can only come from other non-linguistic, but compatible, theories, for example, theories of perception or communications, phonetics and so on. The second type of theory, and this is what I will be talking about tomorrow essentially in my talk, is what may be called linguistic preference theories or theories of linguistic preferences. This type of theory does not deal with what is possible or not

possible in human language, but rather includes the concept of naturalness or markedness or preference, whatever you would like to call it. In other words, these theories contain a concept of rank order on a scale of preference, relative to a specified parameter. Thus preference theories characterize particular language states as being more or less preferred than others. Preference theories, I think, can shed light on and even explain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languages and language in general. For example, the fact that Latin, and I think Korean as well, has only homorganic nasals, for example, nasals that are assimilated to the following consonant, does not seem incomprehensible in light of our preference theory or markedness theory, which states that assimilated nasals are preferred over non-assimilated nasals. These preference theories can also, I think,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planation of language change. What is our goal in language change? First, to set up a descriptive theory or what may be called a catalogue, perhaps, of language change types, and then, for example, within a phonological component we set up change types such as assimilation, metathesis, epenthesis, etc. And a kind of explanation for each change type may be derived from preference theories or markedness theories, for these preference theories will characterize each change type as resulting in a more preferred

state. In other words, the preference, any preference theory characterizes the output of a change as being more preferred than the input to the change, in some sense of the word 'explains' the change. Central goals of the linguist, then, are not only to set up descriptive theories but also to set up theories of linguistic preference and in particular to search for loss of linguistic preference. So essentially that's my research program as I see it. I don't know how well that jives with what you were saying earlier. Thank you.

사회: 설명의 이론으로서 markedness theory인 preference theory를 가지고서 역사적인 변화도 설명을 해본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좀더 preferred 되는 쪽으로 변화해서 결과가 나온다, 대충 이런 뜻으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식진선생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석진: 언어학이 분야가 하도 넓으니까, 분야에 따라서 자료를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가령 아까 손호민선생님의 태평양언어를 분석한다든지, 또 방언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인가 자료가 있어야 거기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자료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론이 적절치 못할 적에 그렇다고 분석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업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요새 세삼 자료와 이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성문법 체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론은 꽤 내세우는데 다루는 자료라는 것은 극히 빈약하지 않으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 영어를 자기나라 말도 아니면서 드는 예를 볼 것 같으면 밤낮 중학교 2학년 영어밖에 안 돼요. 관계대명사 하나 들어가고 'John', 'Mary,' 나오고, 또 우리말로 하면 '철수'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Chomsky부터 그랬지만 저쪽 사람들도, 자기네나라 말 가지고 단문, 아주 simple한 sentence 정도밖에 못나가고 있는데, 그런 한정된 안에서부터 결국은 엄격하게 하나의 이론에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knowledge라하든 competence라 하든 그 분야로만 나가니까 일단 타당성이랄까 수급이 가는데,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어나 우리말의 기술이 되겠느냐, 자료가 빈약하다, 이런 식의 못마땅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그런데, 영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우리가 영어를 다루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많고 결국은 자기나라 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도, 예를 들어, '다 안 왔다' 하면 이것이 중의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이 문장에는 한 가지 뜻밖에 없다면, 부분부정이 되고 전체부정이 되니 두 가지 뜻이 된다고 반론을 펴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ambiguity를 많이 찾아낼수록 머리가 좋다고까지도 얘기해요. 이런 어려움을 자기 나라 말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으니, 요컨대, 생성문법계통에서 현재 아주 유치한 정도의 예문밖에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예문을 머리 속에서 자꾸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찾아내려는 이론에 밀받침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자료의 빈곤, 다루는 것의 유치성을 다 인정하

면서도 자료를 확대시켜 놓으면 와르륵 무너져버리니까 최소한도의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문법에서 현재 영어가 제일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영어문장의 몇 백, 몇 천분의 일밖에 안 되고, 문장의 종류든지 과거 전통문법에서 얘기하던 것의 극히 일부분 밖에 다루고 있지 못해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물론 한 쪽으로 discourse analysis 같은 것이 요새 자주 논의되고 있고, 문장이 확대가 되어 text가 나오고, 또 speech act라 해서 우리말 같으면 종결어미, 존재법같은 것을 실제 녹음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하고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 performance에 속하는 문제니까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해서 제외하고, competence에 국한시켜 knowledge 위주의 언어능력만 다루는 Chomsky식의 핵문법(core grammar), 나아가 UG를 추구하면 그거대로 되겠죠. 그러나 이론이 다룰 수 있는 자료가 조금씩 확대가 되어야겠는데, 그게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고, 이론에 치우칠 사람들은 자기 기호가 있으니까 자기의 research interest가 그 쪽에 있으면 그거대로 나갈 것이고, 또 아까 손호민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부득이 다루어야 할 사람들은 자료를 다루면서 누군가 그걸 답아줄 수 있는 이론을 해주고 또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이론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자료의 문제, 여러 가지 제한성, 빈곤성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때 relational

grammar의 개척적인 역할을 해서 유형적인 비교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형식의미론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웠고 최근에는 Bool의미론을 써가지고 그 쪽으로 공로를 세우고 있어서, 양쪽으로 왔다갔다해본 경험이 있는 Edward Keenan 교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 Let me ask you two questions. First of all, would you make some comments on interaction between theory and data; and the second question is: are the typological comparisons between languages and formal semantics you worked on compatible, I mean, mutually compatible, or mutually exclusive?

E. Keenan: Perhaps let me begin with the second query first. It certainly seems to me that the current work I have been involved with in formal semantics is rather directly inspired actually by much of the earlier work that we might broadly call typological, within any sort of formal semantic framework whether it is the particular one I happen to be interested in or Montague's framework or various others of a more computer science orientation. We are not after all doing just arbitrary mathematics. If we were we would make up nice clean languages and prove lots of theorems about them as people did earlier with various classes called context free, context-sensitive and so on. The formalisms that we make up here are intended to represent at least certain aspects of linguistic structure, and I think that at

least pragmatically these attempts differ, let's say, from work which gets called, within linguistics, formal syntax. In broadly the following way the work on semantics tends to pick on a few specific properties and formulate them with a good deal of precision that we can prove theorems about them, and rather explicitly ignores a great many things that we simply don't know how to represent in terms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 Despite a certain amount of work, for example, we don't really have a very clear idea what aspect is, or how to represent various modes of speech acts and so on. So in most formal semantics this just gets ignored. It's just utterly left out, there is no pretense of representing it typically. The work in syntax, by contrast, is somewhat more ambitious. It wants to represent the whole language and it does so at a cost. It's inevitably more vague in its formulations. The trade-off here seem to me at least from my point of view one of taste. I feel more comfortable working with a small domain that I can handle precisely rather than with a larger domain that I cannot handle so precisely. It seems to me quite clear that both of these types of work are necessary to develop any sort of adequate syntactic, semantic theory. And it seems to me in particular that the sort of formal semantic considerations that I've been interested in for the last several years and, say, broadly the work today that gets called

generalized quantified theory owes a certain debt to what I would even call the typological work. If the only quantifiers we were interested in were those that occurred in English, we might be inclined to limit the class of phenomena that, in principle, we could represent, to a rather small class. So in general it is both healthy and it is supportive of the formal generality of work that goes on within semantics to realize that we actually want to represent something like, in Chomsky's sense, possible human languages. This allows us in effect to ignore, mercifully, a lot of the idiosyncracies, semantic gaps, etc. that we can expect that any given language will provide. Returning to the earlier discussion I will just limit myself to one or two comments. First, it seems to me healthy to be aware that in general there is, I feel, a kind of necessary dependence between what we might on the one hand refer to as a data orientation on the part of researchers and to our theoretical orientation on the other. It seems to me basically not possible to look at what you might call, and we sometimes do call, 'raw data.' What we see is ultimately determined by the categories that we have been foreseeing, O.K. and within any sort of academic discipline they are determined by, in the the broadest sense, the theories that we use. This seems to me fairly clear in areas that are scientifically somewhat more developed than linguis-

tics.

It seems to me most of what we think of as standard laboratory procedures, say, in chemistry, including the elaborate instrumentation we use, these are devices that are made up to enable us to look at certain phenomena, and what we can see here is very largely determined by the categories and the instrumentation that realizes these categories that our theories provide. So I would sort of agree with the view that, I would say it's not really possible just to kind of take a random look at everything and expect to find any sort of laws or significant regularities in nature. I think it is in general true that to find, in particular, linguistic regularities we shall have to highly constrain the sort of data we look at. We may have to have recourse to exceedingly artificial situations to elect this data. This is after all what we do in a chemistry laboratory, O.K. We artificially create a situation which enables us to look at certain things that we want to look at, and if we depended on observing those in some "natural" way we simply never find the data of relevance. So it seems to me in this sense this is a rather strong dependency between what kind of data we can even comprehend and the theories we have. I take this to mean that we cannot have, in the broadest sense of linguistic theory, without something like standard, reliably repeatable procedures for assessing data, without that, we have

no way of choosing between one theory or another. And conversely we are not going to get any understanding of any data. We can't even ultimately perceive the data, in the complete and utter absence of some theory of the objects that we intend to look at. Concerning the notion of explanation that was raised here by Robert, I think it's also, at least meta-linguistically, health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what we might call explanations internal to a theory and explanations in a somewhat broader, possibly deeper sense where the explanations take us outside the theory. To make up an example on the spur of the moment from syntax, if we take specific examples of, say, any of the standard syntactic constraints, say,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O.K. If I attempt to, say, form a relative clause that violates this constraint so I can, I'll say something like "The man who John loves Mary and Susan dislikes." We can agree that in some sense or another this is a bizarre noun phrase. Let's call it ungrammatical or whatever nasty words you choose to apply to it. We count as an explanation for that oddity that all structures which move an element out of a single branch of a coordinate structure are odd in the same way. In this sense we may be said to have explained the oddity of the particular example in terms of a more general phenomena, namely,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say, as given by

Ross or some other formulation. It seems to me that we might push for yet a more general and perhaps a somewhat deeper explanation here. If we look at the same phenomena in somewhat more functional terms, we might want to say something like: we somehow don't accept in a natural language that someone will announce a topic, in some sense of topic, and then fail to say something about it, and we sort of append to this remark that in a coordinate structure we consider pragmatically at least, that we are making two or more claims, and the role of 'and' is to say that each of these claims holds, the role of 'or' is to say that at least one does, the role of, say, neither/nor is to say that none of them does. But in any event the coordinate structure presents us minimally with two claims and then some additional comment about them, and that violation of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is simply a special case of a violation of a claim that fails to talk about the announced topic. Now, on the one hand an appeal of a more functional explanation of this sort, say, topic continuity or something is that it would attempt to actually account for a greater range of phenomena. It would also cover the so-called vacuous quantification cases so that a simple noun phrase of the sort "The man that John loves Mary" where the relative clause fails to mention the head would also be among the paradigm cases covered by this topic continuity

condition, let's call it, or this more functional explanation and that's not an instance of coordinate structure, so the range of data we cover would be in principle greater. The alternative and more general explanation suffers from a certain vagueness of formulation, though one that we might hope to eliminate in terms of, say, some constraint on "logical" form, that is, you can't have a variable binding operator without having a variable that is bound by it and so on. We might ultimately hope for yet a deeper generalization here either in terms of speech act theory or in terms of some more cognitively based analysis. I don't think I have any deep remarks to make about these. It does seem to me that many of the sort of explanations that I think of myself as being familiar with from other fields are of the rather more narrowminded sort, that is they tend to be theory internal explanations, and it seems to me to happen relatively infrequently that a generalization in one field really falls out somehow as a special case of a generalization from some other field. That's perhaps partly so because our social sciences are less well developed scientifically than are physical sciences, but I guess I would like to end with a kind of warning here that it's awfully tempting for people in one field to want to look to some other field as providing their explanations, and my feeling is that often this really isn't going to work,

that it is kind of illusory. For example, it happens often informally in linguistics that the linguist will say the explanation for one or another syntactic constrain is really psychological, it relates to cognitive properties of the users of language. And myself I find this sort of appealing. I would like to think that things that linguists call grammatical constraints really reflect something that is not at all mystical about the mind but that represents processing limitations of our mind and so on. Equally having spent the last few summers working with psychologists at the Max Plank Institute in Holland I find that the psychologists keep calling in linguists looking for explanations for their psycholinguistic phenomena. They observed that certain structures in German are more or less difficult to process in terms of memory and forgetting and so on. There are somewhat comparable structures in Dutch and so on. And they call in linguists to define some sort to explanation for this. Clearly it seems to me that in these cases in any event each field is indulging in a little bit of wishful thinking hoping that somebody else's science is going to provide ultimately the explanation for the regularities that they have observed in their own field. Thank you.

사회: Thank you. 맨 먼저, 영역에 있어서 작게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느냐, 큰 걸 잡아가지고 느슨하게 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에서, 자기는 좁은 범위

에서 정밀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취미와 관계된 문제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data를 찾는데 있어서 역시 이론이 지배, 결정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를 여기는 문장을 설명할 때 언어학에서의 structure로 설명이 되는데, 좀더 깊은 설명을 위해 어떤 cognitive한 접근책을 우리가 시도할 수도 있으나, 언어학은 심리학쪽에 기대려고 하고 심리학은 또 언어학쪽에서 이루어진 것에 기대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주었습니다.

아까 장선생님께서 data의 빈곤성문제를 들추셨는데 자기나라 말에서도 같은 문장을 놓고 중의적이거나 아니냐 서로 논란을 하고 그게 잘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언어학을 하는 분들이 한국어를 자료로 다룰 적에 한국인의 직관에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을 자료로 골라서 이론에다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단히 반발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대표적인 분이 국문과의 이익섭 선생님이셔서,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익섭: 제가 특별히 그 쪽으로 분개를 표명했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같은데.....

사회: 김화춘씨의 anaphor, 이런 거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익섭: 지금 김화춘씨 얘기를 했는데 다 알다시피 그 분은 국어를 자료로 해서 최초로 MIT에서 Ph. D.를 딴 분이요

그 학위논문이 국내에서도 꽤 많이 읽힌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이 일본에서 주로 자랐고, 해서 국어에 대한 intuition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남편의 intuition에도 기대고 MIT에 있는 한국인학생들한테 많이 물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 학위논문에 보면, 요것의 문법성이 70%다, 50%다 하는 식으로 문법성을 percentage로 표시를 했어요. 그게 아마 Ross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문 몇 개를 보겠습니다. ‘자기’ anaphora에 대한 것으로 그 논문에서 받아들여진 건데,

(1) Bill이 John한테 자기집에 데려가 받았다. (Bill was taken to his house by John.)

(2) 자기를 John이 아픈 곳이 괴롭힌다.

(2)는 또 (2')와 동의로서, 둘 다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 John이 아픈 곳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John의 아픈 곳이 John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자기’가 ‘John’을 받을 수 있는 것이 70%라고까지 계산을 했는데 나로서는 별표를 두 개 세 개라도 붙이고 싶은 문장들입니다.

(3) 우수한 학생이 다니는 것이 MIT는 자랑스러웠다.

(3)은, MIT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건데, 영어에서는 “MIT was proud of the fact that a good student attended it”가 가능한가요? 우리말에서는 inanimate가 자랑스러웠다 하는 거는 가능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위논문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이것은 극단의 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특히 미국에 가서 쓰여진 논문들이 그런데, 여기 예문을 뽑아본 것중에는 마침 이정민선생님의 학위논문에서도 하나 뽑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입니다.

(4) 아이가 자기를 주시하던 여자가 때린 그 남자를 보았다.

이럴 때에 ‘자기’가 ‘그 남자’에 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난 머리가 나빠서 따라가지지 않아요. (웃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름을 들어 뵈었지만 가령 임흥빈교수가 드는 예문에도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많고, 그래서 하도 주위에서들 그러니까 그 분이 작년 여기 어학연구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또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이것 또 안 된다고 할 분 있을지 모르지만’ 하는 얘기를 사이사이 집어넣었어요. 아가 theory가 rigorous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료야말로 rigorous해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이 필요하나 자료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습고,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만 너무 연연하는 걸로 해서 육을-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전통방언학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쪽 저 쪽 돌아다니며 꿀만 채취한다고 해서 honey collector란 별명으로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엉뚱한 게 아니고 꿀을 수집해왔으면 잘 한 거고 honey collector란 게 하나도 흠이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료를 뽑고 해석할 때에 다 이론이 바탕

이 되는 것이니까 이론이 필요하다는 건 언제나 맞는 말이겠습니다. 가령 언어학에 대한 소양 하나도 없이 방언조사를 해온다면 이진 아주 첫고생이 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론을 만드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료를 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그만 법칙 하나씩이라고 발견해내느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론가가 되는 일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미술로 하면 인상파라든가 하는 새로운 하나의 물결을 만드는 거나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거나 비슷한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지향적이다, 아니다 하는 게 나이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돼요. 젊었을 적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다 요샌 겁이 나가지고 그런 쪽과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론을 만든다는 쪽에 우리가 좀 겸허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도 나도 이론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계의 풍조인데 처음부터 큰 이론을 하나씩 만들겠다고 덤비기보다는,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정밀히 정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잡혀 올 거고, 그러다보면 큰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와 이론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실증적인 연구, 이론적인 연구로 바꿔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학생들한테는 실증적인 연구를 자꾸 강조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홍배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floor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홍배: 아마 나는 이론쪽을 한다고 불러낸 것 같은데, 저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data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론 자체가 재미있어서 읽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Chomsky 같은 이론을 내보겠다는 생각을 꿈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생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웃음) 물론 저도 이론을 하다가 보니 되잖은 논문을 몇 개 썼으니까 이익섭선생님이 무슨 예문을 하나 들고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들고나오지 않아서 마침 다행입니다. (웃음) 사실은 자료와 이론은 상보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또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료만 다루는 사람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Chomsky가 만든 것이든 Montague가 만든 것이든 어떤 이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말을 describe 했는데 어떤 자료가 잘못되면 국어하시는 분이나 자료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반증이라든가, 또는 뒷받침을 하는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어떨겠는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하는 분들이 무슨 이론을 제시하면 반드시 자료를 대게 되는데, 그 자료가 많은 경우가 자작(自作)이고, 그 자작이 오류가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실린 이론 자체가 다 틀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아시는 분하고 이론을 추구하는 분이 서로 그런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구요, 옛

날도 그랬지만, 요새도 언어이론에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도 변하기 때문에 한 2년 후엔 또 바뀔 텐데 지금 공부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용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heory는 무너지기 위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증세의 연금술이 비록 허황된 것이었지만 현대과학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처럼 비록 2년 후에 무너지던 언어이론이라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저는 자료와 이론의 문제보다도 언어이론간의 문제를 가깝게 생각해 줍니다. 언어이론간을 봐도 서로 풀고 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2/3가 누구 육하는 거고 자기 얘기는 1/3쯤밖에 안 돼요. 가령 discourse analysis를 하는데 sentence grammar를 막 육을 합니다. 또 semantics를 하면서 syntax를 막 육을 합니다. 언어학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아주 복합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Chomsky 자신도 정말 언어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같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하는 것은 내 하는 분야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하는 학문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분야는 저 분 하는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분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풍토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영역간에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는 희망까지 말

씀하셨습니다. 그러면 floor에서 이론과 data간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휘: 제일 큰 문제로서, 결국 이론이 중요하냐, data가 중요하냐, 그런 논란이 되겠는데요. 조금 아까 Keenan선생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가 data를 소위 theoretical vacuum에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혀 theory를 상정하지 않고 완전증립상태에서 data는 못보는 거다, data를 볼 때는 여하간 전통문법이 됐던 뭐가 됐건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orientation에서 어떤 data를 보게 되는 거라 했습니다. 아까 이익섭선생님은 자꾸 theory를 theoretical model로 해석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theoretical model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Chomsky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마는 theoretical orientation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data를 강조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theory를 제쳐두고 data에서 허심탄회하게 출발해서 거기서 하나둘 theory를 전개해간다, 이것은 언어학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이론을 금기시하는, 그런 반동의 여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는 theory와 data를 동시에 출발하는 거지, data만 하고 그 다음에 theory를 하고, 또는 theory만 하고 data를 나중에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기용선생님이, formalism을 중요시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고 justification을 중요시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formalism도 justify가 되어야 하니까 결국 formalism을 중요시하는

언어이론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rmalism 자체가 justify되어야 하니까 언어학은 어디까지나 justification에서 출발을 해서 justification으로 끝나는 거지, formalism을 중시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조병태선생님께서, theory를 생각하지 않는, theory에 공헌하지 않는 data는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우리같은 영어의 native intuition이 없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제가 선생님 말씀을 quote 하겠는데요—‘허구적인 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data를 추구해서 후세에 남기는 그런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언어학이라는 것은 외국인인 하건 본국인이 하건 마찬가지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한국사람이 영어를 공부할 때의 언어학과 미국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의 언어학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거나 미국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거나, 그 공부하는 자세와 이론적 근거는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Keenan선생께 한가지 여쭙보겠어요. Professor Keenan, May I ask a questio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an exception to a theory and counterevidence to a theory?

E. Keenan: I guess I have to admit that naively I don't really make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at linguistics, it seems to me, is about the only area of respectable activity I know

where people haven't attempted to endow the notion of exception with some sort of legitimate status within theory. In some of the clearest cases I guess I haven't really thought much about it, that is, I think I would like to say that in a perfectly traditional sense we can find paradigmatic regularities in a language and we can find especially certain common verbs like 'to be' and 'to have' which may exhibit irregularities in their conjugation and so on, and that in some sense these are exceptions to the regularity, and this is something I suppose we have to account for. I guess I will also go along with Chomsky to some extent along the following lines: that I think it would be a tactical mistake to reject the theory solely on the basis of counterevidence but without any better alternative. Now linguists, it seems to me, abuse this approach to a rather great extent, at least in syntax, I think not so much in phonology. But I think it is historically correct that various theories that have indeed taught us a lot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were defective in many respects. I mean we all know about some of the defects of Newton's theory from the later advent of relativity theory but perhaps more impressive was that early in the game Newton's theory actually made several wrong predictions about the size and the distance from the earth of the moon and so on. There were some embarrassing facts that Newton wrestled with for

twenty years, couldn't figure out and just never published. Nonetheless Newton's theories have been enormously useful in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so I wouldn't be in favor of just rejecting a theory completely merely on the basis of counterevidence. I am, however, on the other hand irritated by the facility with which linguists will use these analogies from Newton's work or Kepler's work to rationalize a bad theory. I don't know how to decide between these two. I don't have any simple recipe here, but I think in the end that linguists, Chomskyan linguists in particular, have been a bit too quick to rationalize bad theories. Let's ignore the counterevidence here because we don't have a better theory, and I think they have even historically not sufficiently realized the extent to which people like Newton and Kepler were very strongly motivated to make their theories conform to the observable data that they had. Kepler's diaries are very revealing in this respect: he built his work on twenty years of observation from Tycho Brahe. He himself did another fifteen or twenty years' work, and he worked for years and years to try and get his mathematical description to conform to the very accurately observed data that he had. So this was a very strong motive force for him, and as a result he eventually came out with a pretty good theory that really told us a lot about the world. And the same was true in somewhat different ways for

Newton. So in short I don't actually have any simple answer to your question. I have a lot of opinions about it, which I have just given you. Thank you.

사회: 양선생님께서는 이론과 자료를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exception과 counterevidence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Keenan 교수가 그렇게 뚜렷이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代案없는 反例는 찬성치 않는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floor에서 좀더 의견 있으시면...

이맹성: 주제발표자와 panel에 계시는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조그마한 점을 보충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와 이론의 필수적인 상관관계는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자료가 없는 이론이란 게, 있을 수 없고 또 언어현상이라는 것을 이론없이 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익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래의 언어학연구의 경향에 있어서 자료가 극도로 무대점을 받아왔다는 점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결국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이론을 구성하자는 것, 또는 언어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한 가지 함정이 된다고 하니, 언어현상이라는 것이 원래 어마어마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제한을 이론에다가 스스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 domain을 어떻게 잡느냐는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을 부가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에서 오는 자료취급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장석진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의 부분성, 즉 전반적인 자료를 다루지 못하고 극히 부분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인지 오류인지저도 확실한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수한 이론이나 제한된 이론으로 해서 언어사실을 왜곡하기 쉬운 오류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익섭선생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 언어학회 모임에 가 보면 어떤 예문이 문법적이냐 아니냐, 혹은 acceptable하냐 아니냐를 두고 서로 벌집쑤시듯 싸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박사학위논문의 예도 드셨을지 모르지만, 이 문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때로는 그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의 이론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floor에서, 아, 이 문장은 안 되는 문장인데 왜 별표를 안 붙였느냐고 하면 발표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불적에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according to my dialect...” 뭐 이렇습니다(웃음). 그러면 이제 또 “according to my dialect...”하고 반박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intuition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한정된 틀에서의 이론이랄까 아니면 특수한 이론에 자료를 맞추기 위한 필요성 혹은 욕구에서 나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이기용선생께서 우리가 자료에 관해서 얘기할 적에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사실은 linguistic facts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linguistic facts란 이론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론이든시간에 이론에 의해서 해석이 되면 linguistic facts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와 이론이 필수적인 관계이지만 실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연구를 하느냐 하는거는 피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으로 보려는 궁극적으로는 역시 이론의 추구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이 언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할 수 없이 복잡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 계통분야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지만, 그러한 물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적에 언어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물리학의 대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익섭선생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주 극도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이론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소위 현대언어학이라는 게 생긴 이래, 가령 미국의 구조언어학도 그랬고 Chomsky의 이론이 나온 다음에 특히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조그마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마치 다 알아버린 것처럼 착

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론의 설정에 두어야 되겠지만, 역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면, 자료야말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편견을 안 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늘 겸허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공부해나가는 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김병원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병원: 저는 행동과학연구소에서 4년 동안 주로 data를 다루던 과학도입니다.

자료와 이론의 문제에 있어, 자료 쪽에서 서게 되면, 되도록이면 해석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료를 다루는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죠. 이론쪽에서 보게 되면, 자료는 신경쓰지 않고,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든지만 합니다. 가령 학생들을 지도할 때, data를 놓고 data에서 어떤 generalization을 derive 하느냐 하고, 이론 쪽에서는, data에 관계없이 철학이든 철학, 논리면 논리에서 그냥 전개해나가서 그걸로 끝냈느냐, 이렇게 나뉘지겠는데, 이걸 matter of choice 이고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언어가 data 쪽에 기울어야 되면 data 쪽을 택해야겠고, phi-

losophy와 logic 쪽에 설 것 같으면 이론 쪽을 택해야겠는데, 저는 언어는 data를 근거로 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택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혹시 좀 도움될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사실은 data를 강조한 분들도 꽤 있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theory와 data에 관해서 Thomas Kuhn같은 과학철학자가 그 사이의 끊임 없는 interplay 문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한다든가, 하나는 이 사람이 하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은 지적이 됩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또 우리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모로 반성을 해야 될 좋은 경고가 제기가 돼서 앞으로 언어학의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data를 정확하게 보시고, 또 이론을 어떤 틀 안에서 구성하시되 차후 커다란 이론가가 돼서 paradigm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꿈을 가지심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리: 김세중>